

요한복음 말씀산책 33회 | 2025. 10. 1

곧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

(요한복음 6:22-29)

(요 6:22-29)

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

23 (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)

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

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

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

(요 6:22-29)

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

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

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

- **사건의 배경**

- 1) **오병이어의 기적**

- 2) **갈릴리 바다의 풍랑**

요한복음 6장 전체의 주제

- '왕 되심'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무리에게
- 당신의 '왕 되심'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는 말씀

(요 6:22-24)

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

23 (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)

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

- 22-24절을 읽고, 무리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?

(요 6:22-24)

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

23 (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)

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

(요 6:25)

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

- 이 질문, “랍비여,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?”의 행간을 읽어보라.
- 어떤 뉘앙스를 느끼시는가?

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

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

- 주님은 왜 그들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시지 않은 것인가?
- 그토록 간절한 그들의 희망을 묵살하신 것인가?

-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야가 아니셨기 때문이다.
- 그들이 원하는 메시야와 메시야로 오신 그분은 전혀 달랐다.

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

- 그들은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,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았던 것이다.
- 표적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.
- 그것은 나의 원함을 채우는 거짓 믿음이다.
- 그 거짓 믿음은 '자기만족'이고, '자기확장'이다.

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

- 여기서 '썩을 양식'은 무엇인가?
- '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'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?

- **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'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만드는 삶'이다.**
- **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,**
- **그 목적으로 예수를 왕 삼는 삶,**
- **그렇게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'믿는다 하며' 오늘을 사는 삶,**
- **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.**

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

-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선생, 니고데모처럼
- 영원히 갈증하지 않을 생수를 오해한 수가성 여인처럼
- 이들 무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.

(요 6:28)

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

- 이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열심이었고,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교사의 의로움이었다.
- 이들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일은 '씩을 것으로, 썩지 않고 영생할 것을 얻으려 하는 '욕심'이고, '자랑'인 것이다.

(요 6:29)

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

-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, 예수를 믿는 것,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.
- 나의 어더함을 보고, 그분의 어더하심을 보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다.
- 나의 사망과 그분의 생명이 내 눈에 보여지면,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이다.

결론

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

- 우리는 날마다 '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'라고 질문한다.
- 성도의 하루는 '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'와의 싸움이다.